

민수기 9:15-23

구름 따라 가는 삶

구름과 불 / 순종의 훈련

**M: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바로 왕에게 속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곧 바로 왕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노력은 모두 오직 바로 왕을 위해 사용되었기에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동족들이 눈 앞에 있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적은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위한 여러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로 왕의 명령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이 구름과 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 임재의 모습이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한 그늘을, 밤에는 불로 따뜻한 온기를 주는 등 실제적인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일 년을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있으면 머물로,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그에 맞춰 짐을 싸 행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모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 한 달은 그렇다고 치지만 일 년을 사막 한 가운데 아무런 목적없이 멈춰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쯤이면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 구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접어두고 하루를 또 이곳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쉽지 않은 여정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훈련하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는 훈련,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 삶에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으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질리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입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더욱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훨씬 더 고차원적인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26-38

운명을 갈라 놓은 기준

보이는 것으로 / 형벌과 은혜

M: 어떤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축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약속에 땅의 코 앞에 도착했지만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즉 거인족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는 겉으로 보기에 참 딱하고 안됐다 싶지만 그들의 이 눈물은 긍휼히 여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원인은 믿음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어째서 여호와가 그 땅에서 칼에 죽게 했는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가서 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 대해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태도는 평상시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 오는 습관은 보이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것만 보고, 고기가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할 줄만 알았지 물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짧아진 시선, 급하게 결정하는 마음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곧 불신앙으로 불신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커녕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칼에 죽게 만드는 악한 신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정작 악한 것은 자신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에 맞는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은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불순종한 자들의 정해진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생만하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세대는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못봐도 자녀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최악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몰아 붙였던 그들의 고집스러움은 절망의 죽음의 형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자체를 빼앗지 않으시고 다음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운 아낙 자손의 모습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면 어땠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21:4-9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승리 / 사망

M: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고 2세대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를 점령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4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과 싸우려 하다가 패배해 달아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제 공격을 한 네겟 지방의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과 백성을 붙여주면 성읍을 멸하겠다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멸하겠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40년 전에는 패배했지만 지금은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 1세대의 원망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본 2세대라 그런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실수를 안할 수 없지만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실수를 줄여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역사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알면 필요에 맞게 재현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삶은 저주의 삶인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심고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줄여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1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2세대가 첫 승리를 경험한지 얼마되지 않아 선조의 길을 그대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돔의 거절로 우회하게 되자 여정이 힘들어졌고 덩달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아침 기적으로 주어지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평가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삶이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쉽게 승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선 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원망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큰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장대에 낫뱀을 매달아 쳐다보는 사람은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는 낫뱀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살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지키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27:12-23

내림식과 세움식

모세는 가고 / 여호수아는 오고

**M: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아바람 산으로 이끄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충성된 종이었지만 가데스의 므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것에 대한 벌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모세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려하심으로 멀리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특별한 혜택을 주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약 1:20). 우리는 항상 마음을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욕한다고 해서 욕하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면 안됩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순종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태도는 주의 종들에게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뽑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임했으며 오랜 시간 모세를 섬겼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들 중에 믿음을 보였던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스팅으로 본다면 차기 지도자로 흡잡을 곳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팅들을 근거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봐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소망보다 백성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모세, 이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엘르아살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하여 여쭙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도 정하여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명을 수행하고 비전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혈기를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전달되어 가는데 오늘 내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느 곳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